

Since 1960

경부고속도로 건설용 중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주)헤인이
10월 17일 창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기계산업을 선도하는
헤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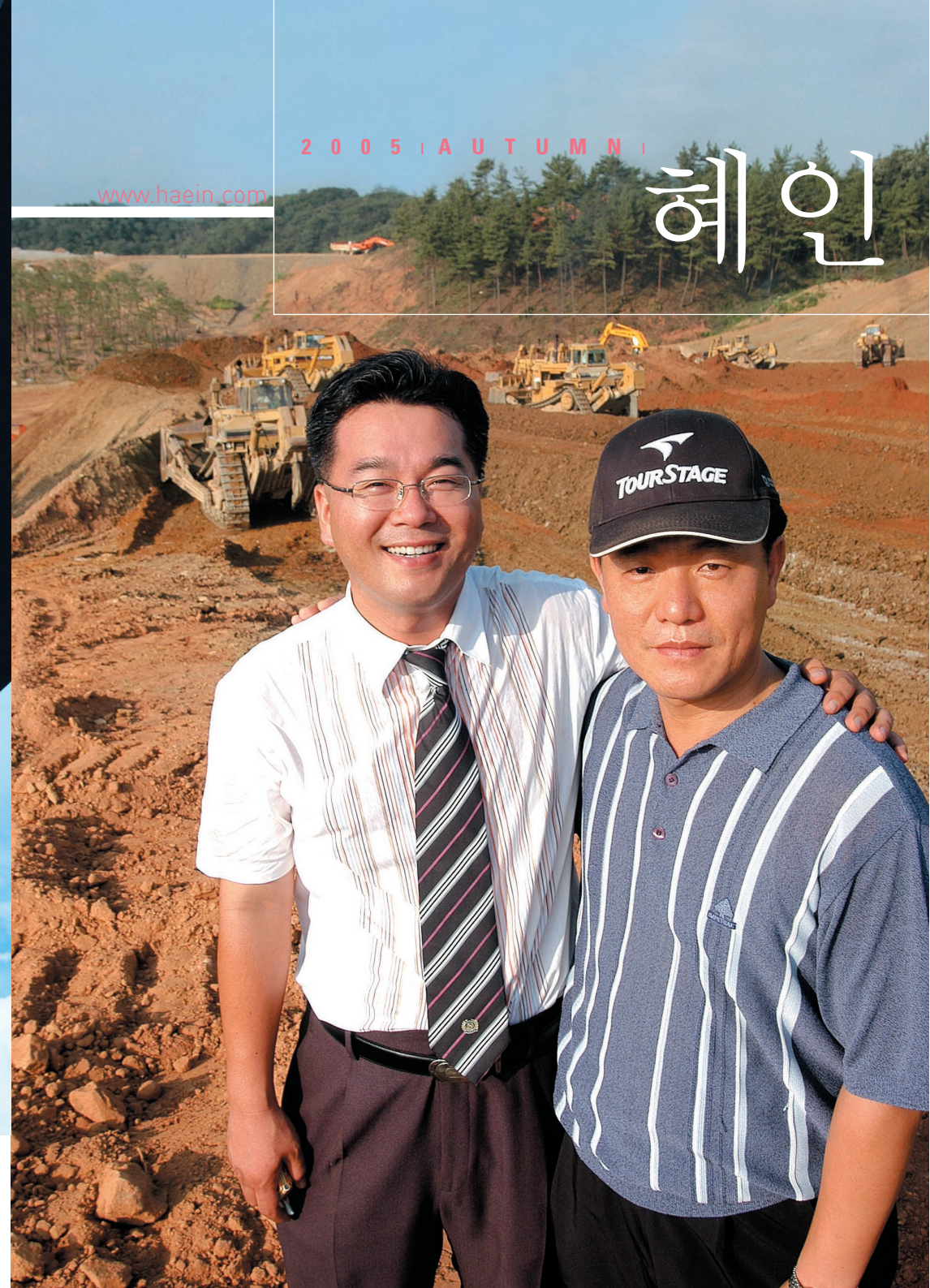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본사: (02)3498-4500 또는 전국 각 지점/고객불만접수 080-022-5775
천안고객지원센터 041) 559-1500 평택창고 031)667-2066/9 양산창고 055)385-9668
서울영업본부 02)3498-4541/8 경기북부영업소 031)826-0966/8 영동포영업소 02)2636-2891/3 남부영업소 031)667-2062/3 부산영업본부
051)517-7060/935-0500 진주영업소 055)852-8811 포항영업소 054)262-7551/2 인천지점 032)761-0564/6 동해지점 033)522-5211 광주지
점 062)945-5811/5 제천지점 043)643-3307/644-3307 전주지점 063)245-1777/8 대구지점 053)521-8072/5 대전지점 042)531-6518/9

www.haein.com

2005 | AUTUMN |

헤인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신체 기관 **足**

딛고 가는 걸음 걸음 歩

살며,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行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순간과 동시에 항상 어딘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발
지금 당신의 발은 어디에 머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Special Theme Human Body ; foot

발

발, 탄생부터 성장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다

03 프롤로그 | 04 테마 이야기 | 06 테마 인터뷰 | 09 테마 백과사전
10 헤인 동서남북 | 14 高客古客 | 16 Here is Haein | 18 업계는 지금 | 22 최고의 장비
24 헤인 뉴스 | 26 독자 나눔터 | 24 생활의 발견

표지 설명 : 용포골프장 현장에서 (주)헤인 전주지점 김대영 소장과 용포관광개발주식회사 박경섭 부장

2005년 가을호(통권 249호) | 2005년 9월 27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사람의 신체 중 비밀스럽게 숨어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발. 손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 신체기관이지만 깊숙한 곳에 가려진, 그래서 겸손하기까지 한, 발이 들려주는 다양한 변주를 들어본다.

가장 겸손한 이름, 발

인류번성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발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발은 가장 우월한 부분이다. 오직 두 발로 신체의 무게를 감당한 채 평생 머리와 몸이 시키는 대로 걷거나 뛰는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건넬 때도, 입술이 달콤한 키스로 사랑을 확인할 때도 발은 그저 꽉 막힌 신발에 갇힌 채 손과 입술이 하는 행동을 묵묵히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아직 유인원이라 불리던 시기에 웅감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 세상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던 인류가 지금과 같은 번성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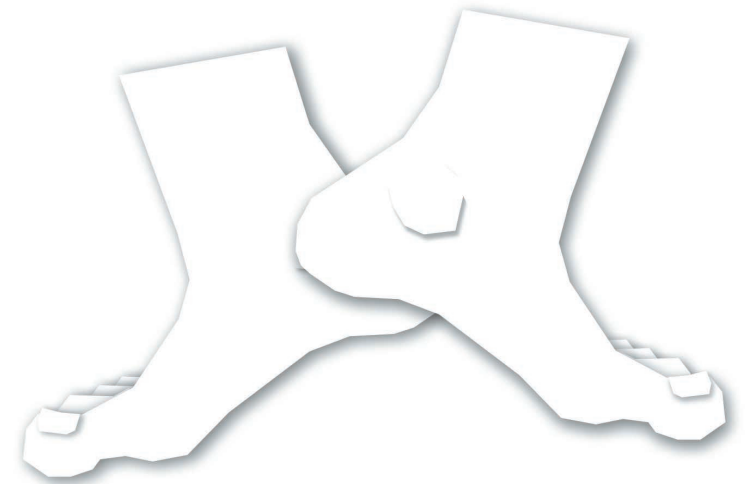
정형외과 의사이며 발 인류학의 권위자인 인류학자인 더들리 모튼은 “인간이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신체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발에서 시작된 변화는 서서히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 올라가 척추를 변화시키고, 손을 해방시켰으며, 두뇌와 지능을 향상시켰다”며 모든 발이 인류번성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영혼이 잠든 쉼터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원시인들은 사람의 발과 발자국 사이에 정신적으로 통하는 연결부가 있다고 확신했다. 한 마디로 말해 사람의 발자국에 사람의 영혼이 기거한다고 믿은 것이다. 실제로 피렌체, 토리노,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로마 신과 이집트 신들에게 바치는 발 기념물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신의 힘을 빌려서 남성의 정력과 다산을 기원하며, 신의 능력을 청송하는 제의를 벌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완강한 힘으로,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싶은 게 남자들의 본성인가보다.

거친 사막에서 살고 있는 서아시아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예절 중 하나는 손님이 오시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값진 향유를 바른 뒤 존경과 복종의 키스로 그녀의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발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 표시는 발이 지니고 있는 힘과 생명력 때문이다. 중세 시대 귀족이나 영주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나 종의 오른쪽 발등을 힘껏 밟아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곤 했다. 그래서 이들이 거느렸던 신하와 종이 자신의 상전에게 올렸던 발에 대한 키스는 당연히 겸손과 복종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



존경과 결합의 매개체

고구려 벽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오(三足鳥) 즉,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는 고대 한민족의 태양 숭배 사상이 제철집단과 결합해 생겨난 상징물이다. 고대인들에게 금속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였으며 금속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은 당연히 숭배와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금속기술을 지닌 지도자를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다. 고구려 벽화 속의 세발까마귀는 왕을 상징하며, 왕은 제련, 제철 기술을 가진 집단의 지도자였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월하노인이 남녀의 발을 붉은 끈으로 묶어주면 인연이 생겨, 부부가 된다고 믿었는데 당나라가 막 건국했던 정관 2년 위고라는 청년이 지금의 허난성에 도착해서 월하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커다란 자루에 기댄 채 커다란 책을 뒤적이고 있던 월하노인에게 위고가 “무슨 책을 보고 계십니까?”하고 묻자 “이 책은 사람들의 혼인에 관한 책인데 여기 적혀 있는 남녀를 빨간끈으로 한번 묶어 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혼인을 하게 된다”고 했다. 과연 위고는 14년 뒤 상주의라는 마을의 관리가 되어 옛날 월하노인이 얘기했던 17세의 어린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늘 자신과 아내의 발에 빨간끈이 묶여 있다는 농담을 하며 웃곤했다고 한다.

발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발은 여전히 꽉 막힌 신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신체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당신의 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혹시 냄새나고, 더럽고, 우물한 모습으로 가려져 있지 않는가? 웬만해선 그윽한 눈길 받을 일 없는 발에게, 오늘날만큼 그동안의 고된 노고를 치하해주는 것은 어떨까?



글. 이원복 (칼럼니스트)

어떤 이에게 발은 삶의 지탱이 된다. 어떤 이에게 발은 삶의 끈이 된다. 그리고 어떤이엔 발이 삶의 수단이 된다.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발의 역할을 짚어본다.

글과 사진 PAS(help@i-pas.com)



두 발로 이 땅을 걷는다

대학생 국토대장정 참가자 홍윤정

3년을 벌렸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국토대장정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한번 해보아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새내기 시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겹쳐서 포기했지만 올해만큼은 달랐다. 내년이면 졸업이다 취업이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쟁률이 150대 1이 넘었던 적도 있었으니 이번에 126대 1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높은 경쟁률은 이미 예상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합격하셨고요, ○○일 1차 모임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강의 중이었고, 너무 기쁜 소리를 질러 교수님에게 혼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하루 종일 학교를 뛰어다니며 자랑을 했다.

21일간의 국토대장정. 평소에도 걷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 이번에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했다. 엄마는 “그래도 미리 운동 좀 해놔야 하지 않겠나?” 했지만 학기 중이라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 그리고 드디어 7월 21일 경남 마산을 출발 서울까지 총 598, 6Km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안개가 자욱한 산을 만난 것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자욱한 안개 속을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안개가 걷히고 다시 환한 산이 보이고 들이 보였다.

“우리 땅 우리 산에 ‘안녕’ 하며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국토대장정이 있기 얼마 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외참가자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 이 땅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조국은 늘 그리운 존재인가 보다. 나도 발로 걸으며 만나는 산마다, 강마다 인사를 하고 싶었다.

내년이면 취업이라는 큰 안개를 만나겠지만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느낌이다. 남들은 발에 물집이 생겨 고생하는 국토대장정 기간 중에도 내 발은 거짓말처럼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다. 이 두 발로 쉼없이 걸으면 그 어떤 안개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 신발에 발을 맞추나

수제화의 명가 송림제화 임효성 할아버지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질문을 건네자 임효성 고문은 잠시 생각에 젖는 듯하더니 이내 “47년”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군대를 제대 하자마자 송림제화에 들어와 일흔을 막 넘긴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으니 송림제화는 그의 전부이자 다른 어떤 바로 그였다. 1936년 신사화 전문 구두방으로 출발한 송림제화가 유명세를 탄 것은 국내 최초로 등산화로 만들어진 위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송림제화를 세상에 만들어놓은 창업자 이귀석(李貴石) 옹은 지난 1996년 82세로 세상을 뜨고, 그의 둘째 아들 이덕해 씨가 현재 가업을 이어 처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송림제화를 이끌고 있다.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이덕해 씨는 끝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 송림제화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업으로 여기며 만들어왔던 수제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이덕해 씨를 송림제화의 사장으로, 수제화의 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가르쳤던 것이 바로 창업자 고 이귀석 옹의 외조카였던 임효성 고문이다.

“47년 동안 신발을 만들어 봐.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 사람은 신발을 사겠구나 안 사겠구나 알 수 있단니까. 그 것뿐인가 발 크기가 어떤지도 바로 알아맞히지. 신기해? 뭐든 40년 동안 해보라구. 세상에 뭐 명인이 따로 있나.”

수제화를 배우겠다고 나선 직원은 6~7명으로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뭐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니겠느냐 말하지만 섬섬한 마음, 표정까지 숨기지는 못한다. 사람의 눈, 코, 입이 다 다르듯, 성격도 다 다르듯 발의 길이, 넓이, 볼의 폭, 발바닥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기계로 찍어낸 신발을 신고 발이 편하겠냐는 임효성 고문의 말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실의 씁쓸함을 다시금 곱씹게 만든다.

원 발 은 나 의 인 생

구 족 화 가 이 윤 정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1급 뇌성마비 장애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 이윤정 씨. 양팔과 오른발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 채 스스로 일어나기도 앉아 있조차도 힘들었던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딱 10년 전의 일이다. 그녀는 발 냄새가 난다고, 발 모양이 못 생겼다고 자신의 발을 천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물론 그녀도 발로 무언가를 집으면 '발로 뭘 잡느냐'는 소리를 듣고 자란 터였다. 하지만 발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데 게다가 두 발 중 그나마 단 하나만이 그런데도 남들에게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번 붓을 잡고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4~5시간, 남들에게는 짧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자 행복의 시간이다. 오래 집중할수록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더욱 심한 몸 부림을 하게 된다. 게다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 때문에 그림을 그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몸이 원발 하나에 한정된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녀가 원발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그림을 그리는 일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 올해 초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의 저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나머지 발이 되고, 손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은혜를 갚는 길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남들에게 그 한쪽 다리뿐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원발은 그 자체로 인생이다.

발은 피가 몸에서 내려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유턴지점. 그래서 발을 보면 그 사람의 병력과 노화 정도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강의 수문장'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발 관리법을 알아본다.

발을 보면, 건강이 읽힌다!

빠르게 걸으면 뇌에 자극을 줘 기분이 상쾌해진다 ●● 느리게 걸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보폭을 크게 해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출퇴근 시 한 정거장 전에 서 내려 걷는 것도 방법이다.

가급적 양말은 천연섬유 양말을 신는다 ●● 발은 천덕꾸러기처럼 외면당하기 쉬운 곳이다. 활동이 많은 사람은 발에 땀이 차서 축축하게 되므로 곰팡이가 번식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신발은 오랜 기간 신고보다 가급적 자주 바꿔 신는 게 좋고, 흡수성이 좋은 섬유 제품의 양말을 선택하는 게 좋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맨발이 좋다 ●● 더운물에 10분, 찬물에 10분씩 번갈아 가며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로회복에 그만이다. 발을 씻을 때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묽은 소금이나 죽염으로 문질러 주면 청결한 발을 가질 수 있다. 담그기가 끝난 후 약 10분간 발을 높이 올려놓으면 더욱 금상첨화다.

신발 선택은 발가락 앞에 1cm 여유, 굽은 2.5cm가 좋다 ●● 신발을 구입할 때는 발이 중간 정도 부어있는 오후 5시 무렵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톱은 일자형으로 깎는 것이 좋고 티눈과 굳은살의 원인은 지나치게 끼는 신발이므로 가급적 넉넉한 신발을 구입한다.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발마사지

●● 자궁 압박이 생길 때

대뇌와 소뇌 반사 부위인 엄지발가락을 봉의 납작한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여러 번 미끄러지듯 자극한다. 손으로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 준다.

●● 스트레스가 심할 때

대뇌 반사 부위인 엄지발가락을 봉의 납작한 부분으로 여러 번 자극한 다음 엄지발가락 끝을 꼭꼭 눌러 자극한 뒤 발가락 사이사이를 전체적으로 마사지해 준다.

●● 만성 피로나 두통이 있을 경우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잡아당겨 자극을 주면 증세가 호전된다. 볼펜 등을 이용해 발바닥 구석구석을 10분 정도 눌러도 효과가 있다.

●● 변비가 심할 때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배변 시 화장실 바닥에 지압식 발판을 놓고 발을 문지르면 변비해소에 효과적이다.

●● 피로할 때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지압봉을 가로 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한다. 밑에 고인 피를 위로 올려 주면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진다.

●● 뒷목이 뻣뻣하고 편두통이 생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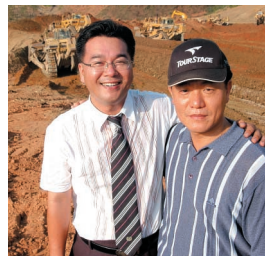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주변을 10회 정도 손으로 누른다. 지압봉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무한한 가능성을 일구는 열정의 땅, 전주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기름진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풍요로운 농경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게다가 손끝 아무지고 감성이 풍부한 지역특성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도시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한 박자 느리게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는 다양한 SOC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의 중심에 (주)헤인 전주지점이 있다.

첫 번째.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전주지점 김대영 소장, (주)장원건설 조재호 사장, 전주지점 김태형 사주
두 번째. 용포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전주지점 김대영 소장과 용포관광개발주식회사 박경섭 부장
세 번째. 작업중인 330CLME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주)장원건설 조재호 사장



전주지점 일당백의 용사들

지금 전라북도는 군산자유무역지구와 신공항, 신항만 등을 포함하는 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발달에 있어서 건설은 필수.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 역할을 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맞춰 (주)헤인 전주지점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시 아스팔트 피니셔인 Titan325와 새만금간척사업 공사 시 캐터필라굴삭기330BL과 330CL을 납품하면서 SOC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장수 경주마 육성사업에도 330CL, 345BL II, 365BL, 345BL II ME를 납품하면서 전라북도의 발전 계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충남 서천 지역을 담당하는 전주지점은 인원 구성에 있어 신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5년 이상 근무자 2명, 8-10년 근무자 3명, 입사 4년차 이



하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에 있어서도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사무실 분위기도 활기차고 서로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점이다. 엔지니어 출신인 김인기 지점장은 장비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의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당황할 수도 있는 직원들에게 미리미리 장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중장비 제품이 워낙 고가라서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한 고객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엔지니어 출신인 김인기 지점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한 존재라고 귀뜸해 준다. 또한 장석의 소장은 천안 부품관리팀에서 부속 관련 파트에 10년을 근무했다. 그래서 부속품과 관련한 문의나 A/S에 친절하게 응대해 고객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골고루 나눠 갖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전주지점의 하모니는 비록 인원은 작지만 일당백의 역량을 과시하는 전주지점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었다.

씨 본 사람은 다 안다

전주지점의 영업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비가 우수해야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 그 점에서 캐터필라장비는 타사 장비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사실 장비는 씨 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 장비 좋습니다’라고 열변을 토해도 장비가 우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 점에서 캐터필라장비는 영업하기 쉬운 장비예요. 씨 본 분들이 워낙 장비가 좋다는 걸 아시니까 ‘헤인입니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아~’ 하고 반응이 오는 게 느껴지죠.”

전주지점 김대영 소장의 말처럼 (주)장원건설 조재호 사장도 캐터필라장비의 우수함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군산오식도 택지 조성, 군산 남북로, 새만금간척사업 등 군산을 주 터전으로 전라북도 이곳 저곳의 토목공사, 도로공사 현장을 20여 년간 누벼온 베테랑이니, 익히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동안은 개인임대업으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작년에 (주)장원건설을 설립하면서 김대영 소장을 만나게 됐고 첫 만남에서부터 캐터필라 장비를 구입하고 싶었다고.

“20년 동안 개인임대업을 하다가, 이제 내 회사를 차

려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좋은 장비에 욕심이 나더군요. 사실 캐터필라장비가 좋은 것이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욕심만 내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욕심 내었던 장비, 욕심만 내지 말고 내 것으로 하자 해서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설립한 (주)장원건설은 330CLME의 효능 덕분에 인지 지금까지 승승장구 쾌속행진 중이다. 취재당일도 쓰레기매립지 공사로 바쁜 조재호 사장은 이곳저곳에서 전화 받으라, 공사현장 지휘하라, 몸이 두 개로도 부족한 바쁜 모습이었다.

골프장 공사현장 70%가 캐터필라장비

법인사업체보다 개인임대업자에게 많은 장비를 납품한 전주지점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었으니, 바로 익산시 웅포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 공사현장이다. 웅포골프장은 금강과 함라산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를 살려 사시사철 관광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휴양지로 만들 곳. 올해 4월부터 75만평의 대지에 골프장, 전원형콘도, 연수원을 짓는 대규모



모 공사현장에서 맹렬이 가동 중인 캐터필라 굴삭기와 불도저를 볼 수 있었다. 2006년 7월 시범라운딩을 목표하고 있어 다량의 장비들로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해야 했고, 그래서 개인임대업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공사현장 곳곳을 누비는 불도저 18대, 굴삭기 25대 중 70%가 캐터필라장비이니, 캐터필라의 우수성이 한눈에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D11N, D10N, D6H, D3C 등의 불도저와 330CL, 345BL II, 345BL II ME, 365BL 등의 굴삭기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캐터필라 굴삭기와 불도저의 활약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된 공사현장은 토목공사 진행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박경섭 부장 역시 캐터필라장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회사의 많은 제품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터필라장비는 유독 힘이 좋아요. 또 다른 회사 장비에 비해 고장이 적으니 현장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장비이지요. 다른 장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터프하게 공사를 진행해주니까, 장비에 붙어있는 캐터필라라는 이름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캐터필라라는 이름 하나로 마음 든든하다니,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일의 성공에는 미래를 앞서 보는 선견이 필수적이다. 영업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고객 발굴은 성공의 필수요인이다. 전주지점은 이 법칙을 숭신수범하는 곳이다. 법인쪽 영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자, 지난달에는 건설회사, 골재업체 등 300여 업체에 (주)헤인 전주지점을 소개하는 DM을 보냈다.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을 대하는 전주지점의 미래가 아스팔트 위에서 시원하게 보였다.

글. 손완주, 사진. 이승혁

Tip 전주에 가면

금강하구둑 철새 조망대



금강하구둑은 유라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국지간 이동하는 조류와 물새의 이동경로이다. 그래서 금강하구둑 주변에는 국제적 희귀조인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개리, 고니 등의 다양한 조류를 볼 수 있다. 금강하구둑은 우리나라 생태 보고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진다. 국제적 희귀조의 보존과 철새의 생태 관찰에도 의미 있는 금강호 철새조망센터에 가면 조류전시관, 동영상관, 전시실, 학습 및 강의실, 전망대, 조류관찰소 등 조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렁쌈밥



우렁은 <동의보감>과 <본초신약>에 건강식으로 소개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음식이다. 금강하구둑 주변에 있는 간촌마을에 가면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우렁으로 푸짐하고 맛 좋은 우렁쌈밥을 먹을 수 있다. 우렁을 넣고 겉쪽하게 끓인 우렁된장, 텃밭에서 재배한 다양한 채소로 새콤달콤무친 우렁무침, 바삭하게 구워낸 콩치구이,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찌개는 5,000원이라는 가격이 민망할 정도의 맛을 낸다. 우리 선조들이 먹던 방식 그대로의 맛깔스러운 음식은 요즘 말하는 웰빙 식단 자체를 보여주는 듯하다.

불가항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술제일주의



세상에는 분명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 자연재해 등의 천재지변은 고난 불가항력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나날이 진보하는 기술력은 불가항력의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술력의 승리는 헤인에도 있다. 온 국민이 즐기는 방송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실에서

방송사에서 발전기는 보험 같은 존재

쉽게 말해서 비상발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원이 불의의 사고로 중단되었을 때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공급설비시스템이다. 단 몇 초의 전원중단도 방송사고가 되는 방송국에서 비상발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엔 한 단계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택된 비상발전기가 바로 캐터필라 발전기이다. KBS가 캐터필라 발전기를 사용한 것은 1976년부터. 기술본부 건설기전팀 전기담당 김현기 씨가 입사한 1981년부터 줄곧 관리해온 비상발전기는 아직도 간단한 정기 점검만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비상발전기 제품을 보면, 사용한지 15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하더군요. 하지만 캐터필라 발전기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던 것들이라 저보다 근무년수에서 선배지만, 아직도 간단한 정비만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캐터필라 발전기가 고가이기는 하지만 성능이나 내구성이 좋아 비싼 만큼 제 몫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캐터필라 발전기의 우수성을 아는 김현기 씨의 마음이야 다른 비상발전기들도 캐터필라 발전기로 대체하고 싶지만 캐터필라에서 230kw 이하 소용량 발전기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량을 제외한 대용량은 대부분 캐터필라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십년동안 쌓인 끈끈한 신뢰

김현기 씨의 헤인 사랑은 10년 전 김형태 과장을 처음 만났을 당시 KBS가 보유한 비상발전기가 30여 대였다가 90여 대로 늘어난 비상발전기 제품 수량에서도 알 수 있다.

“인상에서 느껴지듯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예요. 사실 저희 둘은 영업사원과 고객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뭐라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끈끈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하나라도 더 먼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니, 그 시간 동안 김현기 씨와 김형태 과장이 쌓은 신뢰가 오죽 단단하겠는가.

비상발전기는 방송국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방송국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설비시스템 요소로 포함된다. 각 지방 방송국, 방송 송신소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요즘에는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 사정이 좋아져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오래 비우는 연휴 때면 마음이 불안하고는 했다. 기술적인 관리는 모두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연휴 때면 전국 방송사 곳곳에 있는 비상발전기에 마음이 쓰이고는 했다. 더구나 태풍이 부는 여름철이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몇 년 전 태풍 루사가 왔을 때였어요. 경포송신소와 양양송신소, 정선중개소가 침수되어서 방송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송신소가 침수가 되었으니 비상발전기도 침수됐죠. 그래서 복구를 하러 가는데, 폭풍 때문에 길까지 없어진 거예요. 길을 뚫고 도착해서 사고 3일 후에 전파가 나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고 상황도 알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방송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일을 하는 보람이 느껴지더군요.”

사진 촬영을 위해 내려간 KBS의 전력실에서는 2000kw(2대), 900kw(1대) 비상발전기가 안전한 전력공급을 책임지기 위하여 든든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 모두를 즐겁게 하는 방송을 위해 헤인도 한쪽 어깨를 지탱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글. 손원주, 사진. 이승혁



KBS 기술본부 건설기전팀 전기담당 김현기 씨와 (주)헤인 발전에너지팀 김형태 과장

헤인과 삼성 TESCO, Win-Win을 위해 뭉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TPO를 얼마나 충족하느냐이다. 즉, 고객이 원하는 시간(Time)에 특정한 장소(Place)로 상황(Occasion)을 100% 만족시킨 제품을 제공하는 것. 그 TPO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제품이 헤인에도 있다. 바로 각 가정에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융하인리히 물류장비들. 완벽한 TPO 충족을 위해 헤인과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가 손을 맞잡았다.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

지난 1월 (주)헤인 산업장비영업팀에서는 경사가 있었다. 삼성 TESCO와 함안물류서비스센터에 필요한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장비 납품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것. 냉동창고용 장비를 포함한 물류센터내의 모든 물류장비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어깨가 으쓱해질 일이었다. ERE220, ECE220, EFG213, AM2200 등 융하인리히는 6월 23일 3차에 걸쳐 납품이 완료되었고 드디어 7월,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가 오픈을 했다.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는 각 업체들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나눠서 각 지점으로 분류해서 운송하는 거점 역할을 합니다. 남부권과 일부 중부권에 배송될 신선식품의 보관과 이송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지요. 신선물류니까 각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각 지점 홈플러스로 분류해서 이송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물류 분류는 필수이고, 그 역할을 융하인리히가 하는 겁니다.”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배본직 센터장과 헤인의 인연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본직 센터장은 당시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기 위해 제품을 알아보았다. 다른 나라의 물류센터를 둘러보는데 유독 융하인리히 제품이 눈에 띄었다.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융하인리히 제품을 알아보았고, 헤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성능, 판매실적, A/S 네트워크 등에서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 물류센터에 융하인리히 제품을 도입하게 되었다. 물론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그 당시 물류센터에는 헤인 제품 외에 다른 회사 제품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무자들이 근무할 때 보면, 근무처에 일찍 오는 사람들은 융하인리히를 사용해요.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할 수없이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융하인리히가 진짜 좋긴 좋구나 하고 느꼈어요.”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서양현 디파트장의 말에서 직원들의 헤인 제품 만족도를 알 수 있었다.



(주)헤인 산업장비영업팀 이진호 과장,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서양현 디파트장,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배본직 센터장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선구자

유독 삼성 TESCO 물류센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기계들이 많았다.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배본직 센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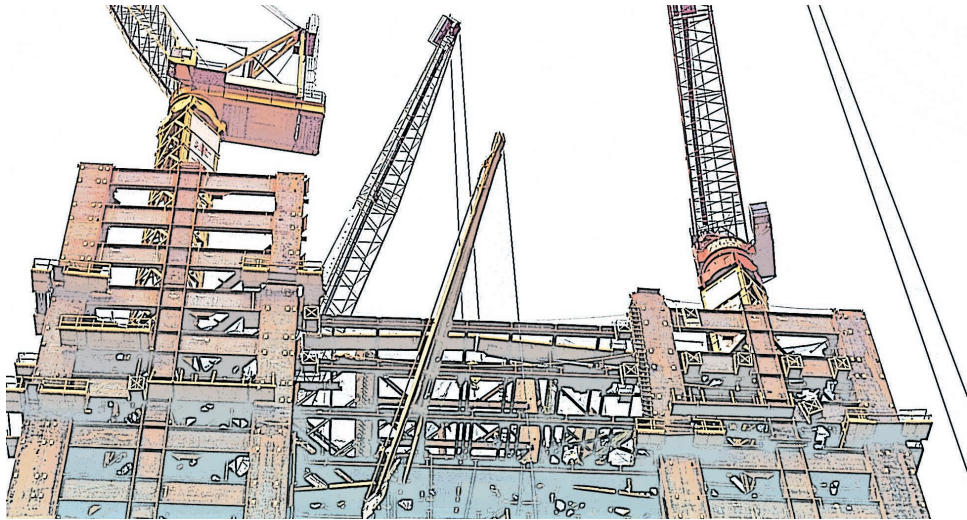
“업무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발전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한번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는 기계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고생이야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보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는 기계를 묻는 삼성 TESCO 함안물류서비스센터 배본직 센터장의 질문에 산업장비영업팀 이진호 과장은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다양한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진호 과장은 다른 직원에 비해 더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얻게 되는 값진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ECE220도 바로 그 경우였다. 포크 자체의 길이가 길어서 한번에 2,3개씩의 팔레트나 운반이 가능해 물류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 제품은 물류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팔레트와 팔레트 사이 사이즈에 맞게 수정을 한 후 납품을 받았다. 장비 검토에서부터 납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 보람을 느낀다고 전한다. 노력한 만큼 더 큰 보람이 있다는 경구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건설경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과잉 대응하는 바람에 초강수를 두어 경기침체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금리인상이나 공공택지 원가공개 등 핵심이 빠져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어찌되었든 금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경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대외변수와 함께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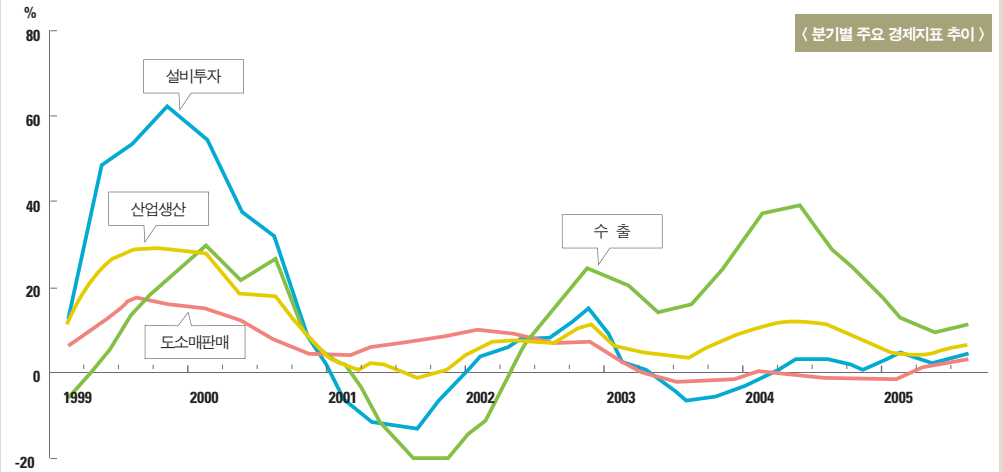
2005년
국내 경제성장률
3% 후반으로
둔화

상반기 동안 우리 경제는 배럴당 60불을 넘는 고유가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한대로 수출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채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200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 미만으로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 10% 내외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하반기의 상황도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그다지 밝지 않다. 건설투자는 2003년 10.29 대책이후 주택 분양경기가 위축된 여파로 감소할 조짐이 보이는데다가, 다시금 8.31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어서 향후 건설경기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를 보완하려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예상만큼 높지 않아 전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05년 1~7월 건설수주액은 재건축 수주와 민간투자사업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0.1%



2005년 건설경기
동향과 주요 변수

증가하였다.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2월부터 급증하면서 6월까지 거의 7~8조원 가량의 물량이 쏟아졌다. 2003년의 17.4조원, 2004년의 8.6조원에 이어 올해도 물량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가 5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음으로써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공권 관련 논쟁이 '공동시행 허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가수주(假受注) 상태로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합법적인 수주로 포착되고 사업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로 낙찰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수익성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은 수년째 동결되다시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신규 공공공사 수주물량도 크게 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이 전체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대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SOC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노인요양시설, 병영막사, 군인아파트 등의 사회기반시설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확보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규모는 17개 분야 약 24조원이며 그 중 2005년에는 약 6조원정도 발주할 예정이다. 현재는 충주 군인아파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학교 및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주택부문은 8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과거 가격안정을 위한 수요대책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부동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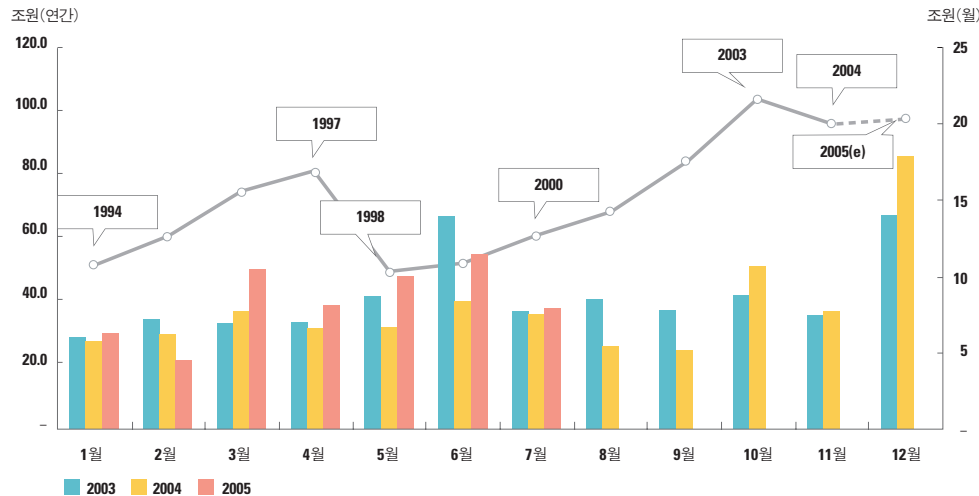
주*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이전-임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도의 개혁이라고 평가된다. 세제 개편 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취득세·등록세 강화,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담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2010년까지 총 4,500만평을 조성하고 중대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대출,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투기조사 전담기관 신설, 토지보상방식 개편 등 포괄적인 부동산 제도들을 보완하였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향안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건설경기 전망

건설수주는 2004년에 통계적 반락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재건축사업과 공공 턴키공사의 증가로 2.0%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전망에 비해 높아진 것은 재건축재개발관련 수주가 증가하였고 BTL 민간투자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연기된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 집행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BTL 방식의 발주로 기존 공공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2004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으로 주택부문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비주거부문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주거부문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빠른 진행과 턴키공사의 증가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은 기저효과에 의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은 건축물 후분양제 시행, 내수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이 줄고 있어 12.7%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수주 추이〉



한편 건설투자는 2004년 4/4분기, 2005년 1/4분기 감소후 2/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종별로 보면 건물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큰 감소로 1~2% 감소하고 토목투자는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4년에는 3.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오피스텔, 오피스의 과잉공급과 내수 회복 부진으로 감소세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건설경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대형상가 및 공장용 건축물 수요의 감소로 건설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부문은 판교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은 오피스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의 과잉공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개발부담금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신규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BTL 민자사업의 이행과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건설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개량 등 토목부문은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2006년도 SOC 정부예산이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망의 시사점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에 감소하고 금년에는 미미한 증가에 그치면서 금년과 내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주택건설경기의 위축을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유지를 통해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6년도 정부예산계획을 보면 건설투자와 직결되는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규제가 계속 강화된다면 건설투자는 더욱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지역 및 내수경제,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건설업이 계속 침체된다면 겨우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가 차츰체될 수도 있다. 지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과 검토 중인 수도권내 공장건설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된 양극화 현상이 건설산업에서도 나타나 건설산업 구도변화에 의한 업체규모에 따른 양극화 및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업체는 주택브랜드가치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재건축사업, 턴키대안공사 및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수주 및 매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 중소업체들은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학교 및 하수관거 사업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줄어들며 업체수가 계속 늘면서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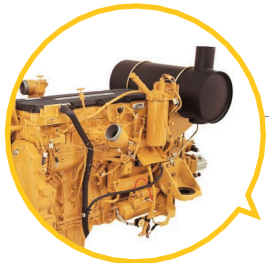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005년 하반기 이후에도 건설업계는 산업차원의 경기양극화 극복과 업역, 입찰절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물량 부족, 수익성 저하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수주 영업력 및 사업기획력 강화와 더불어 원가절감 노력에 더욱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 건설자재, 가설, 설계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생하는 건설산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글: 백성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형굴삭기의 자부심 캐터필라 345CL / 365CL 출시

현재 국내 각종 현장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캐터필라의 대형굴삭기(345BLII/365BLII)를 대체할 C-SERIES 대형굴삭기가 드디어 국내에 도입되었다. 캐터필라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C-SERIES 대형굴삭기는 높은 경제성, 운전 및 정비편의성, 생산성을 목표로 설계, 생산되어 이후로도 국내외 대형토목현장은 물론 각종 산업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글: 장비마케팅팀 류광숙 과장 (ksryu@haein.com)



ACERT Technology 기반의 최첨단 캐터필라 C13/C15 엔진장착

ACERT(Advanced Combustio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엔진은 최첨단 연료시스템을 이용, 배기가스를 감소시켜 최첨단의 환경보호규제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엔진구성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연료 소모율대비 작업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연료효율 최대 3%증가)

신개념의 운전석 및 운전자편의장치 장착

운전자중심의 신개념 캡 및 편의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안락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 C-SERIES 칼라모니터 장착
- 에어서스펜션시트 & 시트히타 장착 (선택사양)
- 고효율의 에어컨 장착



향상된 인상력과 증가된 정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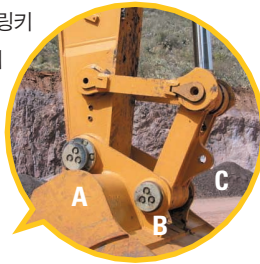
증가된 유압시스템압으로 인상력을 최대 7%까지 향상시켜 각종 현장에서의 작업다양성과 효율성증가를 실현했다. 또한 각종 휠타 및 오일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비시간과 운영비용을 대폭 줄였다.

- 엔진오일 및 경유휠타 : 최장 500 시간
- 파일릿 및 드레인 휠타 : 최장 1,000 시간

신개념의 버켓링키지(Power Link) 채택

증가된 인상력에 적합한 링키지를 채택함으로써 구성품의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편직경 증가
A : 100 → 110mm
B : 80 → 100mm
- 링키지표면에 Lifting Eye(후크)장착 (그림참조 : C)



기존의 버켓표면이 아닌 링키지에 후크를 장착함으로써 인양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효율을 증대시켰다.



경남 진주 석산 현장에서 작업중인 345CL



- 탈착이 용이한 K-Series Tip 채택 (선택사양)
팁교체시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고 이전의 팁에 비해 강도 및 수명이 증가됨으로써 정비비용을 절감하였다.

랙장착(345CL)을 선택사양으로 제공함으로써 장비가동, 운송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원격으로 장비 진단, 문제점조사, 연료 사용량, 장비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캐터필라의 첨단 장비관리시스템인 Product Link (선택사양)를 장착해서 장비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



업그레이드된 된 하부

그리이스주입식 트랙을 기본으로 장착함으로써 하체 내구성을 증대시켰다. 부싱 내외부 마모율이 감소돼서 최대 25%의 하부수명연장효과가 있다. 또한 가변형 트

기본 제원 비교

구분	단위	345BLII	345CL	365BLII	365CL
운전중량	kg	44,400	44,970	66,300	67,700
버켓용량 (SAE)	cum	2.0	2.0	2.5 / 3.0	3.0
엔진	제조사 / 모델	-	CAT 3176C/ATACC	CAT C13/ACERT	CAT 3196/ATACC
	배기량	cc	10,300	12,500	12,000
	정격출력	hp	312	312	404
	@회전수	rpm	2,000	1,800	2,000

※ 버켓용량은 국내 도입시의 일반적인 규격입니다.



소형 불도저 D3G 전시회 개최

(주)헤인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영등포에서 특별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출시된 캐터필라 불도저 D3G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직접구동 방식(Direct Drive) 형식에서 유압펌프와 유압모터로 구동되는 하이드로스태틱 (Hydrostatic) 방식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D3G 불도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고객과 헤인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헤리케인 부스터 딜러 계약

(주)헤인은 지난 2005년 7월, 35년 전통의 전문 부스타 제조 메이커인 미국의 헤리케인사와 정식으로 딜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에서 계약된 부스타 콤프레샤 1호기가 10월초 고객 인도와 더불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주)헤인은 이번 딜러계약을 통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장비 공급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기존 판매하는 콤프레샤와 더불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의 : (주)헤인 IR장비영업팀 윤준호대리

02)3498-4628, 010-2336-9273



CAT Members Club 세미나 실시

(주)헤인 고객지원본부는 지난 7월 21일 천안 교육 센터에서 주요 고객을 모시고 헤인이 추구하는 고객지원과 효율적인 장비관리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고객들은 현재의 건설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헤인과 고객이 파트너로써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헤인 고객지원본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그에 맞는 고객지원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 엔지니어링 신 사옥 이전

(주)헤인의 캐터필라 해상엔진대리점인 한국엔지니어링이 지난 7월 22일 목포시 연산동 삼진산업단지내로 신 사옥을 준공하여 이전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엔지니어링의 신 사옥은 건평 310평의 첨단 정비공장 및 부품/엔진전시부스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목포지역 및 남해지역 고객들에게 효과적이고 신속한 부품공급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 Sigma 뉴스

6 Sigma Team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팀장/지점장에 대한 Green Belt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현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6 Sigma 방법론인 DMAIC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총 31명의 팀장과 지점장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교육에 임하였으며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주)헤인은 6 Sigma 추진 3년째를 맞이하면서 현재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세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팀장/지점장의 Green Belt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6 Sigma 추진 기업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헤인 동우회 소식

(주)헤인에서 근무 후 퇴사하신 직원분들의 친목모임인 '헤인 동우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동우회 사무실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개최하였으며, 모임 후 헤인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헤인 동우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헤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미래에너지개발(주) 준공식

(주)헤인의 자회사인 미래에너지개발(주)이 지난 8월 25일 준공식을 가졌다. 미래에너지개발(주)은 전남 순천시 왕지동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재생연료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이다. 매립가스 발전은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의지 및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에 대응한 것으로 앞으로 15년 이상 발전할 것이며, 미래에너지개발(주)은 캐터필라 G3516 가스엔진발전기 2대를 상시 가동하여 총1.85MW의 전력을 생산, 약 4,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조충훈 순천시장님, 박문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250여 명의 순천시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주)헤인 주5일제 근무 시행

(주)헤인은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인의 정상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및 지점별 연락처

헤인 지점	연락처	영업시간
고객지원센터	080-472-3778(장비) 080-473-8271(발전기/엔진)	
영등포영업소 (남부)	02-2636-2891~2	09:00~15:00
부산영업본부 (포항, 진주)	051-517-7060	
천안부품창고	041-559-1525~6	
경기 북부	031-826-0966~8	
인천 지점	032-761-0564~6	
동해 지점	033-522-5211	
재천 지점	043-643-3307	09:00~12:00
광주 지점	062-945-5811~5	
전주 지점	063-245-1777~8	
대전 지점	042-531-6518~9	
대구 지점	053-521-8072~5	

* 근무시간 이후에도 고객지원센터 및 담당영업사의 휴대전화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독자 나눔터

안녕하세요. 사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STX 조선도 많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5회 한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수산기자재 전시회에 참가한 캐터필라 C18, 3412E 관람 후 해인 엔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인 직원들의 높은 기술력에 감탄하였습니다. 해인 파이팅!

전해사 원포동 100번지 STX 내 (주)해원테크 천옥재 님

말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훨씬 소중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도 돌려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 108-9 (주) 한국레미콘 사영기 님

해인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 사보를 보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대리님께 전해드리기 전에 너무 좋아 항상 제가 먼저 분담니다. 점점 나아져 가는 사보, 너무 좋아요. 항상 발전해 나가는 해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남 전해시 풍호동 주공APT 102동 201호 김옥주 님

일산에서 열린 한국건설기계전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식을 해인 사보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참석하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크고 작은 중장비와 홍보물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해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 면목 4동 347-3 장순만 님

현장에서 CAT라는 로고가 새겨진 해인 장비를 보면 왠지 강인함을 느낍니다. 역시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고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담을 들려주시는 것이 훨씬 정겹게 느껴집니다. 사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대전 광역시 중구 문창동 115-11 2층 진보중기 최인완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 02-3498-4524

승진을 축하합니다

금융무역팀 대리 이견복
전산팀 대리 서영준
CAT산업장비영업팀 대리 하명봉
남부영업소 대리 박양균
대구지점 대리 박광흠
인천지점 대리 최준호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IR장비영업팀 2005. 06. 28 대리 윤준호
금융무역팀 2005. 08. 09 사원 이관영

결혼을 축하합니다

제천지점 2005. 05. 28 사원 이재광

지난호 그림맞히기 퀴즈 정답

1	3	2
4	8	7
5	9	6

적립식펀드가 대세다!

요즘 금융상품 중에서 인기 1위는 단연 적립식펀드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7월말기준 약 300만 계좌에 월 5천억 원의 자금이 적립식펀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월급이 나오는 월말에는 적립식펀드 자금이 지수를 끌어 올리는 월말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적립식펀드에겐 분명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 매력이 뭘까?

리스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적립식펀드의 인기 배경에는 먼저 저금리 시대라는 두 자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과거 20%대의 전설적인 금리 시대에는 안락한 내 집 마련의 꿈과 쑥쑥 자라는 자녀들의 교육, 편안한 노후까지 저축을 통해 해결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약 4%대의 금리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 펀드투자가 투자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고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펀드가 그나마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IMF를 전후해서 리스크를 최악시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저금리시대에는 리스크가 유일한 재테크의 탈출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순간 내 자산의 가치는 이미 서서히 말라 죽어 가는 고목과 같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금리 0.1%를 더 받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희망'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건만 문제는 역시 손실 가능성이다. 알뜰살뜰 절약해서 모은 목돈이 보람도 없이 원금손실이 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바로 적립식펀드의 매력이 돋보이게 된다.

적립식펀드는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보통 매월 단위)으로 소액의 자금을 분할해서 펀드에 투자한다. 장기분할 매수를 통해 다양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일시 투자보다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가령 처음 50만원이던 주

가가 계속 떨어져서 다음 달엔 40만원, 그 다음엔 30만원, 20만원, 다시 반등해서 30만원, 40만원으로 회복하는 6개월 동안 어떤 주식의 주가흐름이 있고, 그 주식에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일시 투자의 경우 50만원에 20주를 사고 6개월 후 40만원에 처분한다면 200만원의 손실이 난다. 하지만 매월 적립식으로 월 2백만원을 분할 투자할 경우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약 31만원으로 낮아져서, 40만원에 전량 처분해도 약 293만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이처럼 적립식 투자는 가격의 변동자체를 이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밤잠을 설칠 이유가 없다. 특히 남비처럼 변동성이 심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가격회복 사이클이 빠른 편이어서 2~3년만 장기투자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오른다고 흥분하지 말고 내린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르고 내리는 흐름 자체를 즐기면서 시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둘째, 적정 목표수익이 달성되면 욕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매수는 편안하게, 매도는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다.

요즘 "종합주가지수가 높은데 주식투자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많다. 그것이 두렵다면 단연 적립식펀드가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적립식펀드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항상 마음먹은 때가 가장 가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글. 손민보(신한Private Bank 분당센터 팀장)



이 한 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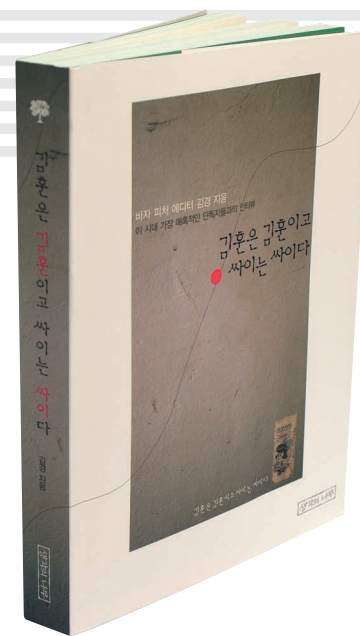
그들을 읽으며 나를 돌아본다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

이 책은 미술과 건축, 만화와 음악, 문학과 정치, 연기와 사진, 디자인과 개그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스물두 명 남자들과의 인터뷰 모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대부분의 인터뷰들은 인물의 독특한 색채와는 무관하게 상품 홍보처럼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인터뷰를 당하는 인물 자체에 주목한다. 이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하나인 김훈, 재기발랄 만화가 이우일, 열정과 야망의 배우 장동건,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노무현 대통령, 저급과 삼류를 지향하는 싸이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인물들의 독특한 세계를 조명해본다.

이 책은 뻔하지 않은 질문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당황스럽게도 하지만, 대중 매체로만 들여다 보던 사람들의 가슴 한쪽을 진지하게 살펴볼게 된다. 대중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게 된다.

김경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2 0 0 5

A U T U M N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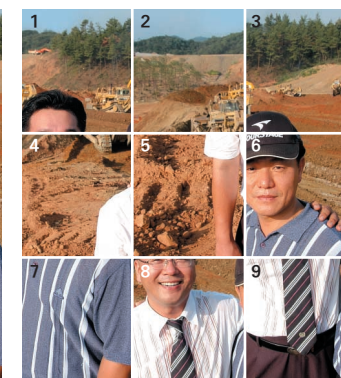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애 독 자 카 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2		



● 독자나눔터의 실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1 3 7 - 1 3 0